

2025 년 봄 학기  
전시간 훈련을 위한 메시지 개요

전체 주제:  
바울의 서신서들 안에 있는 진리의 중점들 —  
에베소서

메시지 15  
영적 전쟁

성경: 엡 6:10-20, 마 6:10, 12:22-29, 시 110:3 상

- I. “우리의 싸움은 피와 살이 있는 사람들에게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,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지배자들과 하늘들의 영역에 있는 악한 영적인 세력들에게 대항하는 것입니다.” — 엡 6:12.
- A. 6 장 10 절부터 20 절까지에서 우리는 교회가 하나님의 원수와 마귀와 하늘들의 영역에 있는 악한 영적인 세력들을 패배시키기 위한 전투원이라는 것을 본다.
  - B. 11 절에서 바울은 마귀의 계락을 말하고 12 절에서는 우리의 싸움은 사탄의 악한 세력들에 대항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.
  - C. ‘피와 살’은 사람들을 가리킨다. 그들 뒤에는 하나님의 목적에 대항하는 악한 마귀의 세력들이 있다.
  - D. 우리의 씨름과 싸움은 사람들에게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, 하늘들의 영역에 있는 악한 영적인 세력들에게 대항하는 것이어야 한다.
  - E. 이 어둠’은 오늘날의 세상을 가리킨다. 오늘날의 세상은 완전히 마귀의 어두운 통치 아래 있고, 마귀는 악한 천사들을 통해 다스린다 — 롬 13:12, 요일 2:11.
  - F. 이 어둠의 세상 지배자들은 여러 나라들을 다스리기 위해 사탄이 세운 군주들이다. 어둠의 권세인 사탄이 일하고 있기 때문에 지구와 대기는 ‘이 어둠’이 되었다.
  - G. 에베소서 6 장 12 절에서 바울은 “하늘들의 영역에 있는 악한 영적인 세력들”에 대해서도 말한다.
    - 1. 여기에서 ‘하늘들의 영역’은 공중을 가리킨다(엡 2:2). 사탄과 악한 영적인 세력들은 공중에 있다. 그러나 우리는 그들 위에 있는 삼층천에 앉아 있다(엡 2:6)).
    - 2. 사탄과 그의 악한 세력들은 우리 밑에 있으며, 그들의 운명은 우리에게 패배당하는 것이다.
    - 3. 우리는 반드시 이 영적인 세력들에 대항해 싸워야 한다
- II. 에베소서 6 장 10 절에서부터 20 절까지는 신약에서 영적 전쟁에 대해 가장 분명하게 다루는 부분이다.
- A. 에베소서 6 장 10 절에서부터 20 절까지는 새사람인 교회가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 원수에 대항해 싸우는 단체적인 전투원이라는 것을 제시한다.
    - 1. 한 새사람인 교회는 하나님이 의도하신 단체적인 사람이고 이 새사람은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의 원수를 처리하는 이중의 목적을 이룰 것이다 — 창 1:26.
    - 2.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 이루어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의 갈망이 만족되어야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도 반드시 패배당해야 한다. 이것을 위해 교회는 반드시 전투원이 되어야 한다.
  - B. 영적 전쟁이 불가피한 것은 사탄의 의지가 하나님의 의지와 대립되기 때문이다 — 엡 1:5, 9, 11, 마 6:10, 7:21, 사 14:12-14.
    - 1. 새사람인 교회가 어떻게 영적 전쟁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전투원이 될 수 있는지를 알고자 한다면, 우리는 우주 안에 세 가지 의지, 곧 신성한 의지와 사탄의 의지와 사람의 의지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— 계 4:11.
    - 2. 영적 전쟁의 근원은 신성한 의지와 사탄의 의지의 충돌에 있다 — 마 6:10, 겔 28:12-19, 사 14:12-14.
    - 3. 교회로서 우리가 하는 싸움은 사탄의 의지를 굴복시키고 하나님의 원수를 패배시키는 것이다 — 엡 6:13.
  - C. 교회와 사탄 사이의 전쟁은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교회 안에 있는 우리와 하늘들의 영역에 있는 악한 세력들 사이의 전투이다 — 엡 6:12.

- D.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둠의 세상 지배자들은 반역한 천사들이다. 그들은 사탄이 하나님을 반역할 때 사탄을 따랐고, 지금은 하늘들의 영역에서 세상 나라들을 다스리고 있다 — 골 1:13, 단 10:20.
- E. 영적 전쟁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. 그것은 몸, 새사람의 문제이다 — 엠 1:22-23, 4:24, 6:13.
  - 1. 교회는 단체적인 전투원이며, 믿는 이들은 함께 이 단체적인 전투원을 구성한다. 단체적으로 한 군대로 편성된 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에게 대항해 싸울 수 있을 것이다.
  - 2. 하나님께서 주신 완전한 전투 장비는 몸을 위한 것이지 개인들을 위한 것이 아니다. 오직 단체적인 전투원만이 하나님께서 주신 완전한 전투 장비를 입을 수 있다.
- F. 하나님께서 주신 완전한 전투 장비를 입음으로 우리는 마귀의 계략, 즉 악한 책략에 대항해 서 있을 수 있다 — 엠 6:11, 13-14.
  - 1. 그리스도와 함께 앓는 것은 그분께서 성취하신 모든 것에 참여하는 것이고, 그분의 몸 안에서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성취하는 것이며, 그분의 능력 안에서 있는 것은 하나님의 원수에 대항해 싸우는 것이다 — 엠 2:6, 4:1, 5:2, 8, 6:13-14.
  - 2. 원수에 맞서 싸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 있는 것이다. 모든 것이 이루어졌으므로 우리는 끝까지 서 있어야 한다.

### III. 영적 전쟁의 목적은 하나님의 왕국을 이끌어 오는 것이다 — 계 11:15, 12:10.

- A. 영적 전쟁은 하나님의 왕국과 사탄의 왕국 사이의 전쟁이다 — 마 12:26, 28, 계 12:11.
- B. 하나님의 왕국은 자동적으로 오지 않을 것이다. 하나님의 왕국이 오기 위해서는 영적 싸움이 필요하다 — 마 12:22-29.
- C. 마귀가 쫓겨난 곳마다, 또한 원수의 일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퇴치된 곳마다 하나님의 왕국이 그곳에 있다 — 마 12:28.
- D. 오늘날 주님의 회복 안에서 우리는 전쟁터에 있다.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을 위해 더 많은 그리스도를 얻도록 공중에 있는 사탄의 세력들과 싸워야 하며, 그리스도께서 땅을 유업으로 받으시기 위해 다시 오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고 확장해야 한다 — 엠 6:10.

### IV. “여호와께서 내 주님께 선포하셨습니다. / “내가 너의 원수들을 / 너의 발 받침대로 둘 때까지 / 나의 오른편에 앉아 있어라.” 여호와께서 시온으로부터 / 주님의 능력의 지휘봉을 보내시리니 / 주님은 원수들 가운데서 다스리십시오. 주님의 전쟁의 날에 / 주님의 백성이 헌신의 광채 안에서 / 기꺼이 자신을 바치리니” — 시 110:1-3 상.

- A. 영적인 의미에서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의 전쟁의 날에 있으며, 이를 위해 우리는 자원 제물, 곧 자원하여 드리는 제물이 되어야 한다 — 레 22:18, 신 12:6.
- B. 하나님의 원수를 패배시키고 하나님의 왕국을 이끌어 오는 영적 전쟁에 참여하려면, 우리는 주님께 절대적이고도 철저하게 헌신해야 한다.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러한 헌신은 광채가 나는 일이다 — 시 110:3 상.